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Malgo Hyanggiropge

only practice virtue
can only make our hearts
purified and emptied.



10 2025

맑음은 개인의 청정을,
향기로움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 法頂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2025 / 10

시절 인연	02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고 진실해야 한다
법정 스님 따라 하기	07	향 뉘 종이에서는 향내가 나고
선재동자와 함께 떠나는 선지식 여행	10	적정음해寂靜音海 주야신
법정 스님 편지	14	자취하면서 공부하느라
법정 스님 향기	16	법정 스님이 사랑한 '독서'
다시 만나는 법정스님	18	사원 찾는 관광객, 그들은 불청객인가?
맑고 향기롭게 사는 사람들	20	맑고 향기롭게와 길상사 소식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나누어 주며 삽시다
- 양보하며 삽시다
-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가꾸며 삽시다
- 덜 쓰고 덜 버립니다.

2025년 10월 1일 발행 / 통권 368호 / 등록일 1999년 6월 23일 / 신고번호 성북라00004호

발행 편집인 덕조 / 기획 편집 홍정근

발행처 (사)맑고 향기롭게 :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 길상사 내

전화 (02)741-4696 팩스 741-4698

디자인 인쇄 디자인나경

홈페이지 <http://www.clean94.or.kr>

대표메일 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을 실천하고 전파하기 위해 법정 스님에 의해 창건된 사찰입니다.

전화 (02)3672-5945 팩스 (02)3672-5947

홈페이지 <http://www.gilsangsa.or.kr>

대표메일 kilsangsa@hanmail.net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고 진실해야 한다

2003년 8월 12일 길상사 하안거 해제 법문 - 1

더위 잘 피하셨습니까? 아침저녁으로 끈끈한 바람이 덜하고, 조금 서늘해졌습니다. 벼농사를 짓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무덥지 않으면 농사가 잘 안 됩니다. 또 우리에게 산소를 공급하는 나무들도 무더운 여름에 많이 자랍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 생물이 어울려서 살아가기 때문에 더위가 됐건 추위가 됐건 그 나름의 의미가 다 있습니다. 몹시 더울 때는 이 더위도 한 때라고 생각하십시오. 또 우리가 살아 있기 때문에 이런 더위도 느낄 수 있습니다.

산중에 있는 저는 도시와 비교될 수 없지만 여름밤이 되면 잠이 잘 안 옵니다. 며칠 전에는 오랜만에 달빛이 아주 좋아, 달 마중하느라고 좋은 밤을 보냈습니다. 잠은 늘 잘 수 있지만, 달은 늘 뜨는 것이 아닙니다. 모처럼 밝은 달이 떴을 때 달과 같이 논다는 것은 잠자는 것에 못지않게 훨씬 값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오늘은 여름 안거 해제 날입니다. 지난 90일 동안 불자로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결산하는 날입니다. 수행하는 사람은 승속을 가릴 것 없이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정직과 진실이 곧 도량을 이룹니다.

유마경에 보면 ‘직심시도량直心是道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곧은 마음,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이 곧 도량이다.’라는 뜻입니다. 도량이 어떤 특정한 지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서 진실하고 정직할 수 있다면 바로 그 자리가 도량입니다. 각자 지난 3개월을 어떻게 정진하면서 살아왔는지 이런 기회를 통해 스스로 살피고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승가에서는 오늘이 부처님 당시부터 내려온 자자일自恣日입니다.

‘스스로 자自, 방종할 자恣’, 안거가 끝나는 날 수행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안거 기간 동안 자기 자신이 지은 허물을 고백하고 참회하여 대중 앞에 용서를 비는 날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율장대품律藏大品 자자건도自恣健度에 자세히 나옵니다. 부처님 자신부터 제자들 앞에서 자자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러한 풍습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제가 송광사에서 지냈을 때만 해도 풍습이 있었는데, 요즘은 자자란 말이 무슨 소리인지도 모를 것입니다. 세태가 아무리 변할지라도 청정한 승가의 근본만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 스스로 자자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길상사에 일이 있어 오는데, 길이 잔뜩 막혀 짜증이 나더군요. 길상사에 다 왔는데 일주문에서 자동차가 못 들어오게 방패가 있었습니다. 다른 날 같았으면 내려서 치우고 들어오는데, 그날은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서, 나를 태우고 다니는 차에도 대단히 미안했지만 그대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앞에 있던 어느 보살님이 깜짝 놀라서, 저한테 ‘스님인 줄 모르고 이걸 치워드려야 했는데...’. 미안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때 나는 아주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오히려 그 보살님을 놀라게 해서 실례를 했으면 했지, 허물은 저한테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 보살님을 놀라게 했던 일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불법(佛法)이라는 것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행할 때 불법이 살아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을 크게 짓고, 평평 굴리고 산다고 하더라도 불법이 행해지지 않으면 그곳은 청정한 도량이 아닙니다.

절 풍습도 그렇습니다. 세태가 변함에 따라서 스님들 식성도 변하고, 생활 습관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대가죽 제도였습니다. 노스님들부터 손상좌까지 한 도량 안에서 지냈기 때문에 전통적인 가풍이 전승됐습니다. 그런데 요즘 노스님들도 안 계시고, 잔소리를 해도 젊은 스님들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승가에 좋은 미풍들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 송광사에 있었을 때 서울에 가끔 올라오면 들르는 절이 있었는데, 새벽 예불에 신도들은 오는데 그 절 주지가 안 나와서 내가 주지한테 ‘주지가 돼서 왜 예불을 안 하나? 신도는 이렇게 오는데’라고 물었더니, 주지가 하는 말이 ‘마음으로 하면 되지’라고 답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누가 마음으로 할 줄 몰라서, 그 추운데 일어나서 그렇게 해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남아 있는 풍습 같은 건 우리가 지켜야 해요.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서 소멸합니다. 한동안 불교학자들이 스님들도 현대화돼서 고기도 먹어야 하고 또 양복을 입어야 한다는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때그때 편리한 대로 뜯어고치면 남는 게 없습니다. 자기들 자신이 지킬 수 없으면 스스로 물러나거나 안 지키면 그만이지, 왜 그걸 법으로 만들겠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대중이 모여 사는 의미는 서로가 지키고 보살피는 겁니다. 대중이 절반 공부를 해준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혼자 절에 와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 안됩니다. 여럿이 어울려서 하니, 따라서 되는 것입니다. 대중이 모여 산다는 것은 바로 그런 덕이 있는 겁니다.

또 혼자서 살더라도 더욱 자기 관리가 철저해야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고 간섭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지내보세요? 그건 혼자 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저도 늘 혼자 지내면서 늘 거듭 거듭 제 스스로 다잡니다.

어쩌다 그 전날 일을 많이 해서 몸이 고단하다고 예불 시간이 됐는데 조금 더 누우려고 하는 그것이 함정입니다. 그때 한 번 속아서, 한 번 거르는 것이 백번 천번 거를 수 있는 소지가 됩니다. 그것이 인과(因果)이 되고, 씨앗(果)이 됩니다. 한 번도 용납하지 않아야 합니다. 죽을병이 아니라면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자기 질서입니다. 수행자로서 자기 관리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일거수일투족 24시간 계속 지켜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본질적인 자아(自我)입니다. 혼자 지내는 사람일수록 정신 똑바로 지니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특정 공간에서 혼자 지낸다고 해서 그것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시주의 빛을 많이 지고, 자칫 잘못하면 위선자가 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수행하는 사람은 승속을 가릴 것 없이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사람은 하루하루 익히는 대로 되어 갑니다. 누가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 나를 만들어 갑니다.

오늘은 지장 기도 회향 날이기도 합니다. 더운데 기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기도 잘하셨습니까? 지장보살을 입으로만 부르고 지장보살의 행을 닦지 않으면 그건 바람직한 기도

가 아닙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언제 어디서 누구를 부모로 해서 태어난 그런 역사적인 존재이지만, 지장보살은 역사적인 존재가 아니라 실재實在하는 존재입니다. 경전에 나오는 모든 보살은 부처님 입에서 나온 불보살입니다. 그러므로 역사적인 특정한 존재가 아니기에, 누구나 관세음보살이 되고 누구나 지장보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관음의 행을 하면 관세음보살이 되고, 지장의 행을 하면 곧 지장보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장보살은 어떤 분입니까? 물론 지장경地藏經을 보면 자세히 나오지만, 한마디로 한다면 진정한 어머니입니다. 지장보살 원願 중의 하나가 모든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을 다 제도한 다음에 자기 자신이 마지막으로 성불成佛 하겠다는 원을 세운 존재 아닙니까?

기도는 크게 참회懺悔와 발원發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세월을 지내면서 어떤 업을 지었는지 알 수 없잖아요. 원을 세우지 않으면 늘 삶이 흔들립니다. 어떤 원은 삶의 지표이고 목표입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 원을 세웠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생깁니다. 내 마음이 열리면 소원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간절한 소망이 불보살의 원에 도달하기 때문에 소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온전한 기도는 먼저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과정에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많이 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든지 지극하고 근원에 도달하게 되면 눈물이 납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고, 환희歡喜입니다. 그것이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 이 글은 2003년 8월 12일 법정 스님이 길상사 극락전에서 하안거 해제 법문으로 하신 말씀을 정리하였습니다. 이 법문은 어떤 책으로도 출간되지 않았으며, 2회(10월~11월호)에 걸쳐 연재됨을 알려드립니다.

2. 법정 스님 따라 하기

향 땀 종이에서는 향내가 나고

영취산 너머에서 30여 대를 이어 내려오면서 농사와 목축을 생업으로 삼아 살아가는 70명의 바라문이 있었다. 그들은 부처님의 설법을 듣자 그 자리에서 수염과 머리를 깎고 출가하여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러나 출가는 했지만, 아내와 자식을 사모하는 정을 여의지 못해 영취산을 지날 때마다 뒤돌아보곤 했다. 어느 날 부처님을 따라 절로 돌아오면서도 그들의 마음은 한결같이 세속을 못 잊어 했다. 더구나 그날따라 비가 내려 그들의 마음은 더욱 울적하고 답답했다.

부처님은 바라문들의 심정을 눈치채고 길가에 있는 빈집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비를 피했다. 그러나 성글게 이영을 이은 지붕이라 비가 섰다. 부처님은 이 광경을 보시고 계송을 읊으셨다.

지붕의 이영을 성글게 이어
비가 오면 곧 새는 것처럼
뜻을 굳게 단속하지 않으면
음란한 욕심이 마음을 뚫는다

지붕의 이영을 촘촘히 이으면
비가 와도 새지 않는 것처럼

뜻을 굳게 지니고 그대로 행하면
음란한 욕심이 생기지 않으리

70명의 비구들은 계송을 듣고 뜻을 굳게 지니려고 애써 보았으나 마음은 여전히 울적하기만 했다. 얼마 후 비가 개어 일행은 다시 길로 나섰다. 길가에 흰 종이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부처님이 한 비구에게 그 종이를 주우라고 하셨다. 그는 분부대로 종이를 주웠다.

부처님께서 물으셨다.

“그 종이는 무엇에 썼던 것인가?”

그 비구가 대답했다.

“향을 찢던 종이인 모양입니다. 지금은 버려져 있지만 아직도 향내가 배어 있군요.”

말없이 길을 가는데 이번에는 새끼줄이 길가에 놓여 있었다.

부처님은 비구에게 그걸 주우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서 다시 물으셨다.

“그것은 무엇에 찢던 새끼인가?”

비구가 대답했다.

“이 새끼 줄에서는 비린내가 납니다. 아마도 생선을 묶었던 새끼줄인 모양입니다.”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든지 본래는 깨끗하지만, 그 인연에 따라 죄와 복을 일으킨다. 어진 이를 가까이하면 뜻이 높아지고, 어리석은 자를 벗어나면 재앙이 닥친다. 그것은 마치 종이가 향을 가까이했기 때문에 향내가 나고, 새끼줄은 생선을 가까이했기 때문에 비린내가 나는 것과 같다. 이처럼 사람들은 무엇인가 점점 물들어 가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부처님은 다시 계송으로 말씀하셨다.

악한 사람에게 물드는 것은
냄새나는 물건을 가까이하듯
조금씩 조금씩 허물을 익히다가
자신도 모르게 악한 사람이 된다

어진 사람에게 물드는 것은
향기를 쏘이며 가까이하듯
지혜를 일깨우며 선을 쌓아
자신도 모르게 선한 사람이 된다

〈법구비유경〉쌍요품雙要品

*법정 스님 강론

친구의 영향력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친구 사이는 서로의 영향력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그가 사귀 친구를 보면 곧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은, 친구란 내 부름의 응답이기 때문이다.

앞에 나온 70명의 수행자들이 두고 온 가정을 못 잊어 하는 것은, 그만큼 오랜 세월을 두고 길을 들어 왔기 때문이다.

출가란 그런 집착의 집에서 벗어나는 것을 뜻한다.

세속에 연연하지 않는 것을 이름하여 출가라 한다.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는 정진이 있어야 한다.

“게으름 없이 꾸준히 정진하라.”

이것이 부처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교훈이다.

적정음해寂靜音海 주야신

선재동자는 중생을 널리 구호하는 묘덕 주야신에게서, 보살이 여러 세상에 나타나 중생을 가르치려는 해탈문을 듣고, 분명히 알고 믿고 이해하고 자재 안주하면서 적정음해寂靜音海 주야신에게로 갔다. 그의 발에 엎드려 절을 하고 합장하고 서서 말했다.

“성자시여, 저는 이미 위없는 보리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선지식을 의지해 보살행을 배우고 보살행에 들어가고 보살행을 닦고 보살행에 머물고자 하오니, 원컨대 자비로 가엾이 여기시고, 저를 위해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도를 닦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야신이 선재동자에게 말했다.

“착하다 선남자여, 그대가 선지식을 의지해 보살행을 구하는구나. 나는 보살의 생각마다 광대한 기쁨을 내는 장엄 해탈문을 얻었노라.”

선재동자가 말했다.

“성자시여, 그 해탈문은 어떤 일을 하며, 어떤 경계를 행하며, 어떤 방편을 일으키며, 어떤 관찰을 합니까?”

주야신이 말했다.

“선남자여, 나는 청정하고 평등한 좋아하는 마음[樂欲心]을 냈다. 나는 또 세간의 티끌을 떠나 청정하고 견고하게 장엄해 깨뜨릴 수 없는 좋아하는 마음을 냈으며, 불퇴전의 자리와 관계

해 영원히 퇴전하지 않을 마음을 냈으며, 공덕 보배의 산을 장엄해 동요하지 않는 마음을 냈다. 나는 머무는 곳이 없는 마음을 냈으며, 중생 앞에 두루 나타나 구호하는 마음을 냈으며, 부처님 바다를 보고도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을 냈으며, 보살의 청정한 원력을 구하는 마음을 냈으며, 큰 지혜의 광명 바다에 머무는 마음을 냈다.

나는 또 중생이 고뇌의 광야를 뛰어넘게 하려는 마음을 냈으며, 중생이 근심과 괴로움을 떠나게 하려는 마음을 냈으며, 중생이 뜻에 맞지 않는 빛·소리·향기·맛·감촉·현상을 버리게 하려는 마음을 냈다. 중생이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고통과 원수를 만나는 괴로움을 떠나게 하려는 마음을 냈다. 온갖 험난을 무릅쓰고 중생의 의지가 되려는 마음을 냈으며, 중생이 생사의 괴로운 곳에서 뛰쳐나오게 하려는 마음을 냈으며, 중생이 생로병사 등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마음을 냈으며, 중생이 여래의 위없는 법락法樂을 성취케 하려는 마음을 냈으며, 중생이 모든 기쁨을 얻게 하려는 마음을 냈다.

이런 마음을 내고 나서 다시 설법해 그들에게 점차 일체지의 경지에 이르게 했다. 어떤 중생이 자신이 사는 궁전이나 저택에 애착하는 것을 보면, 나는 법을 설해 모든 법의 자성을 통달해 그 집착에서 벗어나게 한다. 어떤 중생이 부모·형제·자매를 그리워하면, 나는 법을 설해 불·보살의 청정한 모임에 참여케 한다. 어떤 중생이 처자에 연연하면, 나는 법을 설해 생사의 애착을 버리고 대비심을 일으켜 모든 중생에게 평등해 돌이 없게 한다. 어떤 중생이 왕궁에서 채녀들에게 시중을 받고 있으면, 나는 법을 설해 여러 성인의 집회에 참여해 부처님의 가르침에 들게 한다. 어떤 중생이 환경에 집착하면, 나는 법을 설해 여래의 환경에 들게 한다. 어떤 중생이 화를 잘 내면 나는

법을 설해 여래의 참는 바라밀에 머물게 하고, 어떤 중생이 마음이 나태하고 해이해지면 법을 설해 청정한 정진 바라밀을 얻게 하고, 어떤 중생이 심란해하면 법을 설해 여래의 선정 바라밀을 얻게 한다. 어떤 중생이 그릇된 소견의 숲이나 무명의 어둠에 들어가면 법을 설해 어두운 숲에서 벗어나게 하고, 어떤 중생이 지혜가 없으면 법을 설해 반야 바라밀을 얻게 한다.

어떤 중생이 삼계에 염착染着하면 법을 설해 생사에서 벗어나게 하고, 어떤 중생이 졸렬한 뜻을 지니면 법을 설해 부처님의 보리원으로 가득 채워주고, 어떤 중생이 이기적인 데 안주하면 법을 설해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는 원을 발하게 하고, 어떤 중생이 의지가 박약하면 법을 설해 보살의 힘 바라밀을 얻게 하고, 어떤 중생이 어리석어 마음이 껌껌하면 법을 설해 보살의 지혜 바라밀을 얻게 한다.

어떤 중생이 신체가 불구이면 법을 설해 여래의 청정한 육신을 얻게 하고, 어떤 중생이 용모가 추하면 법을 설해 위없는 청정한 법신을 얻게 하고, 어떤 중생이 근심 걱정에서 시달리면 법을 설해 여래의 필경 안락을 얻게 하고, 어떤 중생이 가난에 쪼들리면 법을 설해 보살의 공덕 보장을 얻게 하고, 어떤 중생이 원림園林에 머무르면 법을 설해 그에게 불법 인연을 부지런히 찾도록 하고, 어떤 중생이 길을 가면 법을 설해 일체지의 길로 나아가게 한다.

어떤 중생이 촌락에 있는 것을 보면 법을 설해 삼계에서 뛰쳐나 오게 하고, 어떤 중생이 사람들 사이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면 법을 설해 이승二乘의 길에서 초월해 여래의 지위에 머물게 하고, 어떤 중생이 성곽에 거주하는 것을 보면 법을 설해 법왕의 성중에 머물게 하고, 어떤 중생이 변두리에 사는 것을 보면 법을 설해 삼세 평등의 지혜를 얻게 하고, 어떤 중생이 시골에

머물면 법을 설해 지혜를 얻어 모든 법을 보게 한다.

어떤 중생이 탐욕이 많으면 나는 그에게 부정관문不淨觀門을 설해 생사의 애착을 버리게 하고, 어떤 중생이 성내는 일이 많으면 나는 그에게 대자관문大慈觀門을 설해 부지런히 닦는 데 들어가게 하고, 어떤 중생이 어리석은 짓을 많이 하면 그에게 법을 설해 밝은 지혜를 얻어 모든 법의 바다를 보게 하고, 어떤 중생이 삼독에 고루 물들어 있으면 그에게 법을 설해 여러 승乘의 소원 바다에 들게 한다.

어떤 중생이 생사의 낙을 좋아하면 법을 설해 싫어서 떠나게 하고, 어떤 중생이 생사의 고통을 싫어해 여래의 가르침을 받을 만하면 법을 설해 방편으로 일부러 태어나게 하고, 어떤 중생이 오온五蘊에 집착하면 법을 설해 의지함이 없는 경지에 머물게 한다. 어떤 중생의 마음이 웅졸하면 나는 그에게 훌륭하게 장엄한 도를 보이고, 어떤 중생의 마음이 교만하면 그에게 평등한 법의 지혜를 말하고, 어떤 중생의 마음이 끈지 못하면 나는 그에게 보살의 곧은 마음을 말한다.

선남자여, 나는 이와 같이 한량없는 법보시으로써 중생들을 거두어 준다. 갖가지 방편으로 가르치고 조복해 악도를 떠나 인간이나 천상의 낙을 받도록 하며, 삼계의 속박에서 벗어나 일체지에 머물게 한다. 나는 그때 큰 기쁨과 법의 광명을 얻어 마음이 화창하며 안온하고 기쁨에 넘쳤다.”

* 적정음해 주야신은 선재동자가 만난 서른다섯 번째 선지식으로 십지중 다섯 번째 난승지難勝地단계의 선지식입니다. 난승지단계의 선지식은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사물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이해하는 동시에 '모든 존재는 헛되고 허망한 것'이라 인식하여 걸림 없이 그 마음을 내려 행하므로 자비의 마음으로 일체 만물을 대하게 됩니다. 선재동자가 적정음해 주야신으로부터 장엄해탈문의 가르침을 배우는 구도 이야기는 2회로 나뉘어 계속 이어집니다.

4. 법정 스님 편지

$$\sqrt[3]{\frac{3}{2}} \sqrt[3]{\frac{1}{2}} = \sqrt[3]{\frac{3}{4}}$$
[illegible]

γ_{20} 44 γ_{20} 44 γ_{20} 44 γ_{20} 44 γ_{20} 44
 (42 44.

바람은 불어오는 가락이 $\frac{1}{2}$ 의 음인 $\frac{1}{2}$ 의 음
 4줄 6리음 1리음 $\frac{1}{2}$ 리음 $\frac{1}{2}$ 리음 4줄 6리음. 이리하여
 7리음은 (바람의) - $\frac{1}{2}$ 리음 $\frac{1}{2}$ 리음 4줄 6리음.

1. 1월 11일 11월 11일 11월 11일 11월 11일
 2. 1월 11일 11월 11일 11월 11일 11월 11일
 3. 1월 11일 11월 11일 11월 11일 11월 11일

[illegible]

戒는慧
지니를 버린다.
어디 버린다.

≡ 佛 아미타 가만 잘
한 인공적인 것. 인공적
이것을 26일 / 佛 아미타
수 佛

귀의삼보歸依三寶

자취하면서 공부하느라 노고勞苦가 많을 줄 믿는다.

옛 수행자들은 어디서나 한결같이

역경逆境 속에서 공부工夫를 했지.

풍족하게 갖추어진 환경 아래서 공부工夫를

성취한 사람은 없었다는 사실을 항상 유의하기 바란다.

가을이 되니 하는 일이 많아 바빠 지내고 있다.

마침 최근에 가루가 들어온 것이 있어

오늘 아이를 시켜 부치도록 하였다.

인삼 가루도 만들어 함께 포장하였다.

인도기행印度紀行은 11월로 일단 연재를 마치고

워고를 더 보충해서 내년 봄쯤 책으로 묶어낼까 싶다.

현전 스님 등 한국 스님들이 겨울에도

대만에 가서 정진할 거라고 한다.

여러 가지로 뜻있는 교류交流가 되었으면 좋겠다.

계정혜戒定慧 삼학三學 안에서 정진 잘하기를 바란다.

또 소용되는 것 있으면 연락 바란다.

10월 26일 합장삼掌

불일암佛日庵에서

* 이 편지는 법정스님이 1990년 10월 26일 덕조스님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법정 스님이 사랑한 ‘독서’

스님은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 중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좋은 책을 읽었던 그 순간들’이라 했습니다.

햇빛이 밝게 비쳐 드는 창 아래 앉아 맑은 정신으로 좋은 책을 읽고 있으면 삶은 그대로 ‘잔잔한 기쁨’이 되었습니다. 다실에서 좋은 책을 읽으면 다실의 이름인 ‘수류화개실(水流花開室)’처럼 마음 안에서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향기로운 꽃이 피어났습니다. 좋은 책을 대하는 것은 마음에 맞는 친구와 밤이 깊어가는 줄 모르고 나직한 목소리로 두런두런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스님이 산중에 살면서 가까이 대할 수 있는 것은 책이었습니다. 홀로 지내면서 적적하지 않은 것은 책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스님은 ‘좋은 책은 삶의 기쁨과 생기를 불러일으키며 속을 여물게 한다.’고 했습니다.

새 책을 읽을 때는 ‘새 친구’를 얻은 것 같고, 이미 읽은 책을 다시 볼 때는 ‘옛 친구’를 만난 것 같았습니다. 스님이 생각하는 ‘좋은 책(良書)’은 읽을 때마다 ‘새롭게 배울 수 있는’ 책, ‘잠든 영혼을 불러일으키는’ 책으로 주로 동서양의 고전들이 이에 해당되었습니다.

책을 읽을 때 아무리 좋은 책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얽매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책을 통해서 ‘자신을 읽을 수 있어야’하며,

책에 ‘읽히지 말고’ 책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듯이 정신의 음식인 책도 함께 받아들여야 하며, 1년 365일을 책다운 책 한 권 제대로 읽지 않고 지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삶은 이미 ‘녹슬은 삶’이라 했습니다.

스님은 옛글을 인용해 독서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책을 읽으면 젊어서 유익하다. 젊어서 책을 읽으면 늙어서 쇠하지 않는다. 늙어서 책을 읽으면 죽어서 썩지 않는다.’ 스님은 ‘술술 읽히는 책’보다는 읽다가 ‘자꾸 덮어지는 책’을 골라 읽으라고 했습니다. 좋은 책은 읽다가 자꾸 덮는 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좋은 책의 글은 ‘거울’ 같은 것으로 자신을 살펴볼 수 있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책은 지식이나 문자로 쓴 것이 아니라 ‘우주의 입김’ 같은 것으로 쓴 것이라 했습니다. 좋은 책을 읽으면 우리의 영혼은 시간 밖에서 온전히 쉴 수 있습니다. 스님은 마른 바람 소리가 들려오면 불쑥 책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곤 예쁜 장정과 잉크 내음이 ‘싱싱한 책’을 한 아름 안고 돌아왔습니다. 책을 한동안 읽고 나면 메마른 가지에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린 것 같고, 흐려진 눈망울이 밝아지고 갈라진 목소리가 트이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을 서운하게 하지 않고 ‘착한 일’만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님은 <어린 왕자>를 스무 번도 더 읽었습니다. 많이 읽어서 이제는 책장을 훌훌 넘기기만 해도 행간에 있는 사연과 여백에 스며 있는 목소리까지 모두 읽고 들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스님은 <어린 왕자>를 소설책이 아니라 ‘하나의 경전’으로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스님에게 한두 권의 책을 선택하라고 하면 선뜻 <어린왕자>와 <화엄경>을 고르겠다고 했습니다.

사원 찾는 관광객, 그들은 불청객인가?

봄 그리고 가을이 오면 가난한 우리 겨레의 가슴에도 관광이라는 들뜬 계절풍이 밀물처럼 스며들게 된다. 가계부의 온도에 구애됨이 없는 것이다. 그들이 문화민족의 긍지를 마음껏 발휘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곳은 으레 문화재가 수도룩 깔려 있는 산중의 고찰古刹이기 일쑤다. 그래서 조금 알려진 절간이면 동구洞口가 미어지도록 인파가 넘치고 있다. 이처럼 부영게 몰려드는 시정市井의 나그네들은 산중에서 수도하는 선지식을 찾아 설법을 듣고 교화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불만한 구경거리를 찾아 앞을 다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의 눈에는 대개 산승들도 절 마당에서 있는 탑이나 법당에 모셔진 불상과 다름없이 한낱 구경거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들은 또 단순히 빈 몸뚱이만 아니고 세속의 시끄러운 소음과 불미한 풍속도 동반하고 온 것이다. 사원은 적정처로서 승려가 수도하는 도량이라는 것은 유치원 꼬마들에게도 상식화된 개념이다. 이와 같은 수도장이 언제부터 시끄러운 관광지로 변신하고 만 것일까?

산에 있는 우리들은 흔히 그들을 귀찮은 불청객이라고 부른다. 과연 그들이 불청객일까? 이쪽에서 오히려 끌어들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른바 ‘신성한 사원’의 문전에서 돈을 받고 입장을 팔고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돈을 받고 입장을 시키면서

신성한 수도장이라고 버틸 수가 있단 말인가.

그렇다! 문제는 절간에 주인이 없기 때문이다. 도를 닦는 청정한 영역이 세속의 나그네들에게 짓밟히고 있다는 것은, 적정치가 수도장인지 수라장인지 알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은 진정한 수도인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법답게 가꾸어진 도량이라면 어느 누가 감히 그 안에서 추태를 부리고 큰 소리로 떠들 수가 있단 말인가. 돈을 내고 들어왔으니 그 값어치만큼은 놓고 가겠다는 그들을 어떻게 제지해야 될 것인가. 하루에도 몇 차례씩 속복과 승복들이 입장료를 둘러싸고 옥신각신하는 비정적非靜인 광경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이다. 특수한 시설을 갖춘 예의 문화재라면 또 몰라도 일반사원의 문전에서 입장권을 팔아 스스로 사원의 품위를 추락시키고 있다는 것은 수도인의 입장에서 재고해 볼 일이다.

거대한 건물들을 가꾸어 가는 데는 적잖은 재력이 소요된다는 것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반드시 문전에서 매표하는 수법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그 이전에도 우리는 굶지 않고 지켜오고 있었으니까. 이러한 문전행사 때문에 우리는 불교도로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얼마나 많을 것인가를 거듭거듭 헤아려 볼 일이다. 그리고 대중이 모여 공부하는 도량이라면 아무 때나 무상출입하도록 열어 두어서는 안될 것 같다. 일정한 시기를 두어 그 기간에만 개방하고 그런 때일지라도 우리들의 수행에 필요한 곳은 결계結界를 하여 외인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밖에서 찾아드는 나그네들을 귀찮게 할 것만 아니라 그들을 자비와 인내로써 교화하여 적어도 사원에 대한 인식이 그 전과는 달라지도록 해야 할 것이고, 그리하여 앞으로는 그들이 사찰을 찾아오는 의미가 새로워지도록 우리 모두가 교화의 사명을 띠고 힘써야겠다.

-1966년 1월 2일

7. 맑고 향기롭게 사는 사람들

중 앙 모 임 (02-741-4696)

■ 법정 스님의 소장품을 연중 기증받습니다.

법정 스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유품, 친필 서신, 선묵, 원고 등 스님과 인연 있는 개인 소장품을 연중 기증받고 있습니다. 우편이나 방문이 어려우면 사무국에서 직접 찾아가서 자료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기증받은 자료는 향후 건립 될 '법정 스님 기념관'에 전시·보관될 계획입니다.

- 문의처 : 맑고 향기롭게 사무국 02)741-4696 / clean94@hanmail.net
- 주소 : 서울 성북구 선잠로5길 68 길상사 내 (사)맑고 향기롭게

■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조리 활동

맑고 향기롭게 중앙모임에서는 우리 주변에 홀로 사는 어르신, 장애인, 결혼 가정 460여 가구에 매주 목요일에 밑반찬 2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절(설날, 추석)과 정월대보름, 부처님오신날에는 생필품을 나누고 연말에는 김장김치를 대상자 가정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시작되는 활동으로, 조금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씩씩 해 주실 수 있는 봉사자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 서울노인복지센터 만발식당 급식 자원활동

서울 종로구 안국역 5번 출구에 위치한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는 어르신의 건강한 노년기와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급식 자원봉사자분들과 함께 만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발식당은 어르신들의 형편에 따라 무료 또는 4,000원을 부담하는데, 매일 800여 명이 넘는 어르신들께 점심을 제공하고 있으며, 맑고 향기롭게 자원활동팀은 매주 월요일에 참여하고 있으며, 동참하실 분은 오전 10시까지 서울노인복지센터 1층 식당으로 오셔서 맑고 향기롭게 자원활동팀을 찾으시면 됩니다.

■ 숲기행 하반기 일정 안내

진행일	장소	접수일
10월 25일(토)	강원 영월 만봉사 - 싸리재 삼거리 - 납석 광업소 - 동전 연못	10월 1일(수)

- 참가비 : 회원 50,000원, 비회원 60,000원
- 후원회원의 할인 기준 : 첫 회비 납부 후 3개월이 경과하고, 최소 3만원 이상 후원하신 분에 한해서 할인 혜택 제공
- 접수 및 자세한 설명은 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우편 발송 자원 활동 : 1일(수) 오전 10시 세계일화실
- 책 읽기 모임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세계일화실
- 향기 우체부 소모임 : 격주 금요일 오전 10시 세계일화실

■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서울노인복지센터 급식 자원 활동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서울노인복지센터 1층 만발식당
- 반찬 나눔 자원 활동 : 매주 목요일 오전 9시 맑고 향기롭게 조리장
- 뜨개질 소모임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세계일화실 / 비대면 활동

■ 연말 재정 후원

-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 스님 학교 후원

대 구 모 임 (053-753-8883)

● 자원봉사자 모집

- 어려운 이웃을 위한 반찬 지원활동(조리, 준비, 정리 등) / 매주 수요일 오전 9시~14시
- 청도 운문사 정기 봉사활동 / 쌀 지원 받음 / 매월 셋째 월요일 8시 30분 출발 / 10시~14시 봉사활동 / 16시 30분 도착
- 아나바다 장터, 사무보조 등 자원봉사자 모집(하루 2~3시간 의류 정리, 서류 정리 등)

● 복합문화공간 '함께' 운영(2층)

- 아나바다 장터, 셀프 카페, 셀프 밥상, 공간대여

● 법정 스님 문화관(5층) 상시 운영

● 법정스님의 발자취를 찾아 떠나는 '무소유기행' 연2회 진행

● 어려운 이웃 반찬, 쌀, 물품 지원 사업

- 홀로어르신,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저소득 정신장애인, 난치병 환우 가정 지원

● 나를 찾아 떠나는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 어르신 정서 지원 사업 : 경로급식 및 행복치료

● 아나바다 장터 운영 : 난치병 환우 돕기 기금 마련, 재사용이 가능한 의류, 신발, 생활용품 등 기부받음

● 환경지킴이 활동

- 생분해 용품 사용하기, 물티슈 안쓰기, 일회용 사용 줄이기 운동 전개

● 각종 자원봉사 활동(1365 등록 기관)

경 남 모 임 (055-266-0170)

- 보헌행원(무료 노인 요양원) : 매월 셋째 수요일 말벗 및 빨래 노력 봉사 / 오전 9시 30분 사무국 출발
- 사파복지회관 무료 급식소 : 매월 넷째 주 화요일과 매주 토요일 점심 준비 및 설거지, 배식 봉사 / 오전 10시~오후 2시
- 해 뜨는 교실(봉림청소년문화의집) : 저소득층 초·중·고학생 공부방에 학습 지도 및 간식 지원

- **결연 가정 후원** : 월 생활비 지원, 밀반찬 및 김장김치 나누기 / 명절 및 가정의 달 세대 방문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장학금 후원** : 결연 세대 청소년 장학금 지원



광 주 모 임 (062-236-3129)

- **점심 공양 나눔** : 매주 월요일~금요일 / 고령자, 저소득,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천 원의 밥상(점심) 운영 / 오전 9시 30분~오후 2시 / 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
- **김치 담그기** : 매주 토요일 진행
- **자비의 도시락 나눔** : 매주 월요일~금요일 / 저소득 가정에 도시락 나눔
- **장터 및 바자회, 쓰레기 줍기 캠페인** : 비정기적으로 회원 및 봉사자들 참여 진행
- **독서, 노래 모임** : 법정 스님 저서 읽고 회원들과 교류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02-3672-5945)

천수다라니 33독송 기도

- 일시 : 10월 4일(토) 오후 6시~8시 30분
- 장소 : 극락전
- 개인 축원입니다.
- 공양물(떡, 꽃, 쌀 등) 설판 받습니다.

지장재일

- 일시 : 10월 9일(목) 오전 9시 50분
- 장소 : 지장전

관음재일

- 일시 : 10월 15일(수)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 ※ 매달 관음재일에는 인등 접수자 축원이 있습니다.

제1회 법정스님 학술 세미나

“법정스님의 무소유를 말하다”

- 일시 : 10월 19일(일) 오후 2시~5시
- 장소 : 설법전
- 관심있는 분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초하루 기도

- 일시 : 10월 21일(화)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추계관음 기도

- 일시 : 9월 7일(일) 입재~ 12월 3일(수) 회향
- 장소 : 극락전

추석 합동차례

선망조상님의 음덕을 기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공양을 올리는 추석합동차례가 봉행됩니다.

- **일 시** : 10월 6일(월) 오전 9시 50분
- **장 소** : 극락전(위패번호 1번~900번)
설법전(위패번호 901번~)
- **동참금** : 5만원 (영가 10위까지)
추가 1위당 5천원

※ 추석 당일 오전 8시부터 다음날 오후 3시 30분까지 참배 가능합니다.

포교스님의 '명상의 기초 - 이론과 명상'

- **일 시** : 10월 11일(토) 14:00~16:00
- **장 소** : 설법전
- **동참금** : 3만원
- **접 수** : 템플스테이 홈페이지

주지스님과 함께하는 '선禪명상'

- **일 시** : 10월 25일(토) 19:00~21:00
- **장 소** : 설법전
- **동참금** : 3만원
- **접 수** : 템플스테이 홈페이지

무소유 선명상 체험 프로그램 [1시간 과정]

- **일 시** :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30분
- **장 소** : 길상사 침묵의 집
- **동참금** : 1만원

※ 템플스테이 문의 : 010-9677-5945

2025년 사랑나눔 연합바자회

- **일 시** : 10월 18일(토) 오전 10시 개회
- **장 소** : 성북동 차 없는 거리
(홍대부속고등학교 입구~현대 블루핸즈)

중양절 (선망 부모 천도제)

- **일 시** : 10월 29일(수) 오전 9시 50분
- **장 소** : 극락전

(사)맑고 향기롭게 후원 안내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개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회로 입금되는 방식으로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신용카드 후원 나이스페이먼트 시스템을 통해 후원자님의 신용카드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회로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후원 방법을 신용카드 후원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직접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회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여 직접 은행에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 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 신청한 은행에 직접 가야 합니다.

지로 후원 지로용지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후원하는 방법입니다. (지로 번호 7618372)

일시 후원 뜻깊은 일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경우, 정기적인 후원이 부담되는 경우, 본회 회원은 아니지만 활동에 공감하여 일시적으로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 다달이 소식을 받아 보는 우편비로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고자 할 때, 직접 본회 후원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정기 후원 · 회원가입

본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후원회원 가입 절차에 따라 각 지부를 선택하여 후원 등록하거나, 각 지부 사무국에 방문하여 가입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각 지역 모임 후원 계좌

*중앙모임 02-741-4696

일반 사업 후원 계좌 : 국민 817-01-0253-129
하나 201-890400-87705
농협 029-01-199412

결식 이웃 후원 계좌 : 국민 817-01-0255-458
신한 100-013-787953

장학금 후원 계좌 : 하나 220-890015-10204

*대구모임 053-753-8883 후원 계좌 : 대구 002-05-016277-8

*경남모임 055-266-0170 후원 계좌 : 농협 932-01-002933

*광주모임 062-236-3129 후원 계좌 : 농협 355-0018-7812-13

(사)맑고 향기롭게는 종교 법인으로 인가되어 후원하신 금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회 법정 스님 학술 세미나

“법정스님의 무소유를 말하다”

● 일 시 : 2025년 10월 19일(일) 14:00~17:00

● 장 소 : 길상사 설법전

시간	발표 및 내용
개회식	
14:00~14:20	개회선언(전체사회) – 김호성 교수(동국대학교 명예교수) 인사말씀 및 축하말씀 기조연설 – 이계진(아나운서, 맑고 향기롭게 전 이사)
제1부	
14:20~15:10	발표1 법정스님의 사상과 초기불교 – 발표 : 김재성 교수(능인불교대학원 명상상담학과 부교수) – 토론 : 이재수 교수(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부교수) 발표2 법정스님의 '무소유', 고집멸도 코퍼스에 기반한 마음치유적 이해 – 발표 : 인경 스님(명상상담 평생교육원 원장) – 토론 : 백형찬 교수(전 서울예술대학교 교수)
15:10~15:30	휴식
제2부	
15:30~16:20	발표3 법정스님의 수행관과 선명상 연구 – 발표 : 문진건 교수(동방문화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교수) – 토론 : 신진욱 교수(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겸임교수) 발표4 법정스님의 민주화 운동과 전개과정 – 발표 : 여태동 박사(동방문화대학원 문학박사) – 토론 : 백경임 교수(동국대학교 명예교수)
제3부	
16:20~16:40	종합 평가 및 토론
폐회식	
16:40~16:50	폐회사 – 덕조스님

*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심있는 분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개인 컵을 사용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주최 : (사)맑고 향기롭게, 길상사